

## 국내 울 80만명, 작년의 2.8배 ... 크루즈 관광객 몰려오는데 대형 크루즈선 전용부두 없는 전남

정부 지원 제주·부산 집중...여수·목포 등 인프라 확충 절실

올해 크루즈선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관광객이 '황금알을 낳는 상금' 크루즈 관광이 다도해를 끼고 있는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유일한 크루즈 전용 부두인 여수엑스포항은 얕은 수심 때문에 대형 크루즈 접안이 불가능해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도 부산과 제주에 집중되고 있다.  
○크루즈 관광 연평균 10.3% 성장 =해양수산부는 15일 올해 크루즈선을 타고 광양·여수 등 국내 항만으로 들어온 관광객이 총 79만56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8만2000명)에 비해 2.8배 늘어난 수치이며, 올해 크루즈선 입항횟수도 414회에 달해 1년 전(226회)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이 지역에서도 여수항에 12회(1만2500명), 광양항에 5회(1만7100명) 크루즈가 접안했다.  
해수부는 크루즈 선사들이 중·일 관계 악화와 방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본 항만 대신 국내 항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입국한 크루즈 관광객의 84%인 63만여 명이 중국인이었다.  
해수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크루즈 관광은 연평균 10.3%가량 성장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관광산업 평균 성장률 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장률이다.  
○대형 크루즈 접안할 수 없는 전남 =중국과 인접해 있는 전남도 크루즈 산업에 눈 뜨고 있다. 전남도는 중국의 크루즈 선사, 언론, 여행사 관계자들을 여수·광양항에 초청하는 등 관련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2004년 일본 퍼시픽 비너스호가 첫 입항한 이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 12회 1만 7000명이 방문했고, 내년에는 34회에 10만명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14만급 대형 크루즈선만 22회 전남에 입항한다.  
국내 크루즈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전남의 성장률이 다소 더딘 것은 제대로 된 크루즈 항이 없기 때문이다. 크루즈 전용부두인 여수엑스포항에는 8만급 이상 입항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형 크루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광양항에 입항해야 한다.  
○정부 크루즈 지원책 제주·부산 집중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의 크루즈 정책은 부산과 제주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부산 북항(10만급), 인천 남항(15만급), 제주 강정항(15만급 2선석)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건설

할 계획이다.  
또 크루즈선 대형화 추세에 따라 부산 동삼동 전용터미널(8만급)을 20만급 이상 접안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박람회인 2014 AACCC(All Asia Cruise Convention)도 부산(2014년 10월)에서 열리며, 현재 전남 입력이 없는 부산·인천·제주항의 선상 입국심사 요원도 45명 증원할 계획이다.  
반면 여수와 광양항은 현재 쓰고 있는 부두 등을 보강해 크루즈 접안에 활용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추가 건설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입국심사도 관계기관이 매년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국과 전남·제주·부산 등 남해안 일대를 잇는 크루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남지역 크루즈 인프라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3일 해남 산이면 일대 서남해안관광저항기업도시(J프로젝트) 조성공사 현장에서 정총리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기공식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정총리 "동북아 관광거점 ... 정부 적극 지원"

J프로젝트 기공식

영암·해남 일대에 대규모 해양관광 도시를 건설하는 서남해안관광저항기업도시조성사업(일명 J프로젝트·브랜딩명 솔라시도)이 10년 만에 역사적인 첫 삽을 떴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해남군 산이면 일대 구성지구(21.87km) 조성공사 현장에서 정총리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해외 투자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J프로젝트 기공식을 개최했다.  
정총리 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관광레저도시 조성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 솔라시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세계가 주목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준영 지사는 환영사에서 "노력을 한 만큼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도시가 잘 되길 바라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J프로젝트의 브

랜드인 '솔라시도'(SolaSeaDo) 선포식도 함께 열렸다. 솔라시도는 태양(Solar)과 바다(Sea)의 영어식 발음과 높은음자리를 결합시킨 것으로 리듬, 에너지, 젊음의 경쾌한 탄포를 연상시키는 휴식이 있는 해양레저도시를 의미한다.  
J프로젝트는 해남군 구성·사공·덕송리 일대 48.1km(145만평)에 골프장과 신재생바이오 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리나, 휴양숙박시설 등을 갖춘 인구 1만8000여 명 규모의 관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남=오광록기자 kroh@

## 北, 장성택 '국가전복음모' 판결 즉시 처형

정부 오늘 안보장관회의

40여 년간 북한 권력의 2인자로 위세를 떨치던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관련기사 2-4면>  
정부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해 대남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북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가 12일 재판에서 장성택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에서 장성택의 재판 소식을 전하면서 수감을 찬 채 보위부원 두 명에게 결박재판에 선 장성택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성택의 사형 집행은 기관총으로 사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반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계승 방책, 제3차 당 대표자회의에서의 건방진 태도 등을 거론했다.  
판결문은 "장성택은 내각총리 자리에 올라왔을 개공을 꾸면서 제논이었던 부서가 나라의 중요경제부문을

걸어줘서 내각을 무력화시켰다"며 심복들에게 주요건설단위 부여, 나선특구 토지 불법매각 등의 사례를 적시했다. /연남뉴스

**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초청의 말씀을 드리오니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한마당**

■ 일시: 2013. 12. 18(수) 오후 6시  
■ 장소: 광주라마다호텔 5층(상무지구)  
■ 문의: 사무처 228-0197-8  
\*참석하신 동문님께서는 소정의 기념품과 경품을 수령하여 드립니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 정 남 올림**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2013년 12월19(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 '터전을 불태우라' 20주년 맞는 2014광주비엔날레 주제

20주년을 맞는 2014 광주비엔날레의 주제가 '터전을 불태우라(Burning Down the House)'로 결정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13일 제133회 이사회를 열어 내년에 열릴 제10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를 확정했다. <관련기사 12면>  
제시카 모건(45) 광주비엔날레 총

감독은 이날 이사회에서 전시 주제와 구성, 추진 방향 등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터전을 불태우라(Burning down the house)'는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뉴욕 출신의 펑크록 그룹 '토크 헤즈(Talking Heads)'의 노래 제목과 같다.  
영국 출신의 제시카 모건 감독은

"당시 토크 헤즈의 전위적인 모습은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광주비엔날레 정신과도 맞아 있다"고 말했다.  
내년 광주비엔날레는 9월5일부터 11월9일까지 66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중외공원에서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혜를 나누고  
인생을 배우는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4 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학과**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자연과학대학 | 농학과, 가정학과, 컴퓨터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간호학과

**교육과학대학** |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프라이멀리지** | 금융·서비스학부(회계금융전공, 서비스경영전공), 첨단 공학부(산업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

모집기간 2013. 12. 2(월) ~ 2014. 1. 10(금)  
입학상담 1577-2853 [입학오심]